제3회 기린토월다회전 열린다

19~25일 기린미술관서 개최

제3회 기린토월다회전이 19일부터 25일까지 기린미술관 1관에서 열리게 된다.

완산8경의 하나인 기린토월(麒麟吐月)은 기린봉 위로 떠오르는 달의 아름다운 풍광을 말한다.

이 기린토월을 차용한 다회인 기린토월다회에는 3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기린이며, 둘째는 토월이고, 마지막으로 다회이다.

성스러운 성물로 꼽히는 기린과 둥근 달이 떠오르는 몽환적인 배경인 토월에서 찻잔을 나누던 다회는 우리 옛 선조들의 종합복합예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종렬, 김동헌, 윤종석, 이병옥, 이일청, 이현옥, 임창섭, 조장현, 조찬숙, 장정순, 투어이, 홍종숙 등 12명의 작가와 다인(茶人)들이 차를 나누면서 만든 예술의 세계를 한껏 펼칠 예정이다.

옛 선조들은 한 잔의 차가 식기 전에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서예와 그림을 그려내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에게 한 잔의 차가 식기전에 자신의 내면에 담아낸 무언가를 표출하는 것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다. 이 전시에서는 그러한 여유로움도 보여줄 것이다.

이현옥 관장은 이번 기린토월다회전을 통해 오감으로 다양하게 예술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으로 겨울을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기린봉의 달빛과 차향이 이끄는 세계, 차와 예술이 함께하는 차담의 시간에 자연과 마음이 하나되는 자리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전시이다. /김재훈 기자

제3회 기린토월다회전 포스터

문화도시 익산, 솜리마을 매력 풍류로 담아냈다

홍보영상 '풍류! 솜리' 공개

익산시가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솜리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풍류! 솜리'를 제작·공개했다.

지난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영상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냈으며, 익산시 및 이리랑익산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영상에는 △옛 익산금융조합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복원한 '솜리문화금고' △시민과 예술인이 소통하는 '익산솜리문화의 숲' △지역 창작자들의 활동 공간인 속리카페·열두달 비누공방·포에버 매듭공방·리스테이 익산 등이 등장해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유산 '이리향제줄풍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 영상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며 관람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영상의 핵심인 배경음악은 이리향제줄풍류 굿거리장단의 선율을 토대로 국악밴드 '모꼬지'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깊은 울림과 세련된 리듬을 담아냈다. 전통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을 더해, 솜리마을의 시간성과 현재의 감성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모꼬지는 1분 숏뮤직 경연대회 '싱어미닛' 우승팀으로, 전통 기반의 음악을 실험적으로 재구성하는 청년 국악팀이다. 이번 협업은 익산의 무형문화유산에 청년 예술인의 창의성이 더해진 사례로 지역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이번 홍보영상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문화가 만나는 도시 변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담아내며,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김제시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기획전 '갈무리-삶을 담고, 기억을 잇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26년 8월 30일까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인류가 삶을 기록하고 기억을 남겨 온 방식을 토기·문자·그림·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생활유물을 중심으로, '저장'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생존을 위한 곡식 저장에서 출발해, 생각을 남기는 문자 기록, 그리고 세상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사진에 이르기까지 저장 기술의 확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브랜드공연 쇼케이스 18일 개최

(재)완주문화재단·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완주브랜드공연 'Two Souls 두 영혼'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Two Souls 두 영혼'은 완주를 대표하는 설화인 '콩쥐팥쥐'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소리극이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선악 구도를 탈피하고, 콩쥐와 팥쥐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닮은 입체적이고 동시대적인 인물로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번 쇼케이스는 전막 작품 제작에 앞서 선보이는 35분 내외의 파일럿 공연이다. 완주문화재단은 이를 통해 완주군의 문화 자산인 콩쥐팥쥐 설화를 활용한 지역 고유의 브랜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내년 전막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5)

잡아라!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남준은 명희만 없으면 군인을 따라가고 싶었다. 명희는 손을 가슴에 얹고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군인이 골목으로 사라진 뒤 한참 지나자 남준은 명희를 일으켜 세웠고, 얼른 집에 들여보내줬다. 명희는 남준에게 조심해서 가라는 당부를 했다.

남준은 조금 전 봤던 군인 옷차림의 사내가 궁금했다. 반란군 잔당이 이 마을까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이 마을은 좌익이 득세하는 곳이고 그 중심에 박대우가 있다는 걸 남준도 알고 있다.

자연스럽게 아까 그 군인이 박대우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남준은 조심스럽게 박대우의 집 근처로 이동해서 몸을 담벼락에 붙이고 박대우의 집 싸리문을 응시했다.

남준의 예상대로 조금 전 봤던 그 사내가 박대우의 집 싸리문을 열고 주변을 살핀 뒤 나오는 걸 봤다. 남준은 몸을 바짝 웅크려 담벼락에 붙였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경계한 뒤 빠르게 골목을 빠져 나가 조금 전 내려왔던 산길을 따라 급히 올라갔다. 남준은 사내를 따라가 볼까 했으나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남준은 바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강병도에게 황전마을에서의 일을 알렸다.

강병도는 남준을 데리고 강용대의 집을 찾아갔다. 남준은 강용대에게도 황전에서 봤던 군인 복장 사내에 대해 말해줬다. 강용대는 남준을 자전거에 태워 무장지서로 향했다.

"그러니까 총을 든 자가 박대우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산으로 갔다 그 말이지?"

강용대와 남준으로부터 수상한 사내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은 지서장이 남준에게 물었다. 남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단 저녁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자가 나타나면 생포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용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지서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남준과 강용대를 포함한 지서장 및 경찰들은 황전마을 입구 산속에 매복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어젯밤에 봤던 그 사내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제 왔다 갔으니까 금방은 안 올지도 몰라요. 며칠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망스런 얼굴로 이마를 구기고 있는 지서장에게 강용대가 말했다. 강용대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지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사내는 모습을 들어내지 않았다. 며칠 허탕을 치자 지서장은 잘못 봤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은근히 강용대와 남준을 압박해 왔다. 강용대는 남준의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연속 닷새를 보내고 엿새째 날을 맞는 밤, 남준을 안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남준이 봤던 그 사내가 산에서 내려왔다. 닷새나 뭉개고 있다 보니 조급증이 일었는지 지서장이 경찰들을 움직이려고 했다.

강용대는 수상한 사내가 찾아가는 집을 알아내고 뿌리까지 잡아야 한다고 지서장의 팔소매를 잡았다. 경찰들은 사내의 뒤를 쫓았다. 사내는 그리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었다.

정규 군인이 아닌 경찰들은 야간전술보행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인지 온갖 소음을 사방에 퍼뜨리며 수상한 자를 쫓았다.

수상한 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자신이 가려던 곳을 버리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잡아라!"

경찰들은 소리치며 사내를 향해 달려갔다. 사내는 산사람답게 움직임이 다람쥐처럼 빨랐다.

'탕! 탕! 탕!'

경찰들은 사내를 향해 총을 쏘며 달려갔다. 그러나 상황은 곧 끝나고 말았다. 다람쥐는 사람의 걸음보다 훨씬 빨랐다. 수상한 자를 결국 놓치고 말았다. 잡든 놓치든 남준은 마음 속 부담을 덜었다.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니까.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